

## 기뻐하시고 언약하심

■ 역대하 7장 10~16절

■ 35(통50), 279(통337)

■ 2017년 7월 30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이 지은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건축 재료를 잘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건축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을 날마다 세워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는, 성전건축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10~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에 모시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합해 많은 제물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대7:1).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10절). 솔로몬은 심중에 여호와와 전과 자기의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11절). 오늘 우리도 성전을 잘 건축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을 깨닫고 법궤를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아지도록 역사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영은 자라나고 신령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심령을 만들지 않고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사모함으로 건축한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심령이 준비되고 영이 자라나고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불로 연단을 해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고전3:12~13). 에베소서 2장 21~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 나가는 성도와 성도들이 연합을 할 때, 교회가 신령한 성전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심령이 자라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더 큰 신령한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불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 육적인 것을 사르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12~16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12절a). 예전에 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구할 기도도 응답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성전을 잘 세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택하여 제사하는 곳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12절b). 그전까지

는 성전이 없었고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이곳을 제사하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 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로 나뉘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고민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남 유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벧엘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여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징계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제단,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단은 신성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성교회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와 봉사와 사명을 받아주십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 예배와 봉사와 사명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13~14절).**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게 하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단히고 심령이 메마르고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가 토산을 먹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유행하듯이 육체의 질병이나 심령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미디안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가축과 짐승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보내서 300명 용사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앞드려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는 것입니다(15~16절).**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전을 통해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심령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주시고, 역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역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영적 성전을 날마다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 중요 공과 내용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10~11절).
2.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10~11절).
3.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해 보세요(12~16절).